

木 本 水 源

이 성 호 옮김
財團法人 國際道德協會 一貫道

木本水源

今天吾們各位來求道 這是吾們各位的根基與緣份祖德深厚

오늘날 우리가 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근기와 연분과 조상의 덕이 깊고 두터운 까닭이다.

所以古人說 有德之家始生修道之子弟 又云 有緣者聞之不捨 無緣者強之不行

옛 사람이 말하기를 “덕이 있는 집안에 수도하는 자제가 태어난다. 또 이 르기를 인연 있는 자는 도를 들으면 버리지 않으며 인연이 없는 자는 애 써 행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가?

若非佛根之人 勢難得人佛道 吾們各位具備了這些條件 今天才得着明師指點

만약 부처님의 근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부처님도량에 들어오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 하였으므로 오늘 비로소 명사의 지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嘗言讀破千經萬典 不知明師一點 因得着這一點 可以超生了死 與脫劫避難這都是道的寶貴

일찌기 천경만전을 독파했을지라도 명사의 이 한점만 같지 못하다. 이 한 점을 얻으므로 해서 초생료사 할 수 있으며 겁난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도의 존귀한 보배인 것이다.

吾們各位不要看輕了 這決不是遇然的事情 各位在未求道以前 經過引保師千言萬語 道吾們求道

우리는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각자가 도를 받기 이전에 인보사의 천가지 만가지의 경과로써 도를 구하게 된 것이다.

進門先掛號 與填寫表文等人位來齊之後 跟看獻供 獻供之時必須有二人執禮 四人站班 一人端供.

☆填=메울전 ☆站=설참☆

법단 문에 들어서면 먼저 이름을 올리어 표문을 쓰고 법당안의 모든 사람이 정숙하게 정돈한후에 헌공을 하게된다. 헌공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이 집례를 하며 네사람이 반을 나누어 서고 한 사람은 단공을 한다.

至於端 接 舉眉齊 等動作 這都是誠心的表示 不能像世俗獻供的樣子 一手一擺即得나 那太不恭敬나

☆擺=얼파☆ ☆나=口=拉-어조사나☆

헌공할 때는 접. 거미제 등의 동작을 하는데 이것은 성심의 표시이다. 속세에서의 헌공하는 형식과는 달라서 한손으로 들고 한손으로 열어 올려도 좋지만 이것은 공경스러움이 되지 못한다.

獻供時 先獻兩杯供茶 一杯是清茶 一杯是濁茶 清茶即白滾水 濁茶即龍井茶
上清下濁 ☆滾=끓음흐름곤. 구름곤☆

헌공은 먼저 두잔의 차를 올린다. 한잔은 청차이며 한잔은 탁차이다. 청차는 끓인 흰물을 말하며 탁차는 龍井을 넣은 차이다 위에는 청차를 올리며 아래에는 탁차를 올린다.

這是甚麼意思呢 因爲三期末劫 人心不古世風頹喪人見人不親人見財物親 所以以利己所在不擇手段 以致殺人搶掠無所不爲.

☆搶=뺏앗음창 掠=노략질할략 搶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삼기말겁에 이르러 인심이 옛과 같이 얇아 세상 풍속이 쇠퇴하여 사람이 사람 보기를 좋아하지 않고 재물만을 좋아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

戾氣冲天而致上天干怒 降下來九九八十一劫 收殺作惡孽之輩 但是惡中有善石中有玉 上天不忍的一齊殘殺.

☆戾=어그러질려. 사나울려☆

이러면 허물이 하늘에 닿아 상천이 노하시어 八十一劫殺을 내리시어 악과 죄를 지은 무리들을 겁살로써 거두어 들이니 다만 악 가운데도 선이 있고 돌가운데도 옥이 있어 상천에서 겁살로써 일제히 죽이지는 않는다.

天降下大道來普渡善男信女 這就是善惡分班玉石分判之意 由何處而分呢由道與劫之間而分.

상천에서 대도를 내린 것은 선남신녀를 보도하며 나아가 선악을 분반하고 돌과 옥을 분반하는 뜻이었다. 어떠한 곳에서 분반하느냐 하면 오직 도와 겁 사이에서 분반되는 것이다.

所以上清下濁即清茶在上首這表示清輕上昇之意 濁茶在下首這表示重濁下落地之意 獻茶已畢然後跟着獻供.

위는 청하고 아래는 탁하여 청차는 위로 오른다. 이 표시는 청한 것은 가벼워서 위로 오른다는 뜻이다. 탁차는 아래에 올린다. 이 표시는 탁한 것은 무거워 아래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미 끝나면 이후 헌공한다.

至於供的數目呢 用一三五七九之單數 因單數屬陽雙數屬陰 修道之人煉純陽體 卽取意。

공과를 올릴 때 숫자는 일삼오칠구의 홀수를 사용한다. 홀수는 양에 속하고 짝수는 음에 속한다. 수도인의 단련은 순양체를 뜻하는 것이다.

對於請供之時有先天供與後天供之分 何爲先天供卽水菓之類 何爲後天供呢卽用火炮製者 如索菓點心素麵之類 但是不要有牛삼與鷄蛋者才可 要清供素蔬爲佳 獻供必然後請壇. ☆菓=과자고. ☆삼-女=及=얼굴에 붙삼. ☆蛋=새알단. ☆

헌공할 때에는 선천공과와 후천공과로 나뉜다. 선천공과는 싱싱한 과일을 말하며 후천공과는 불에 익혀서 만든 것을 말한다. 깨끗한 채소와 깨끗한 빵 종류를 올리며 단 우유와 계란은 올리지 않는다. 요컨대 깨끗한 과일. 채소. 나물. 빵 등을 공과에 사용하는 것이다. 헌공을 마친 후에 청단을 내린다.

請壇時有六位站班 請壇人獻上五枝信香 與無生老母接上佛緣 然後請壇.

청단을 내릴 때에는 여섯사람이 반을 나누어 서고 청단인은 향 五주를 헌향한다. 이것은 노모님과 결연하는 것이며 향을 올린 후 청단을 내린다.

請那位呢 卽請 無生老母怎叫 無生老母呢 因這 無生老母生天生地生萬物 生吾們的佛性 卽無生老母所生.

어떤 일로 청하는 것인가? 즉 무생노모님을 청하는 것이다. 어째서 무생노모님이라 부르는가? 왜냐하면 무생노모님은 하늘을 낳고 땅을 낳고 만물을 나셨으며 우리의 불성도 나셨다. 즉 모두가 무생노모님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但是雖能生天地萬物 沒有生他 老母所以叫 無生老母 人嘗言有兩個老母 就是除生 色身之母外 尙有生佛性 無生老母 吾們與這無生老母有六萬餘年未有見面啦.

☆啦=어조사람☆

비록 천지만물을 나셨지만 노모님을 낳는 분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무생노모님이라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찌이 말하기를 두분의 어머니가 계신다고 했다. 색신을 낳아주신 어머니 외에 불성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불성을 낳아주신 무생노모님을 육만여년동안 그 얼굴을 뵈지 못했다.

因今天是大喜之日 點道之期 所以請這 無生老母與諸天佛祖降臨 無生老母一動身 卽有諸天神聖 萬仙菩薩 雷部風部虎部龍部 二十八宿值日星官 統通護駕

臨壇.

오늘은 일지점으로 도를 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기쁜날이다. 무생노모님이 더불어 모든 부처님. 조사님께 단에 오시도록 청하는데 무생노모님이 몸을 한번 움직이실 때마다 모든 신선과 만선보살. 뇌부. 풍부. 호부. 용부. 이십팔수의 치일성관을 거느리고 보호받으며 단에 내려 오시는 것이다.

雖然我們的佛堂不大 但是仙佛不少 不過是吾們沒有慧眼 不能見到仙佛而已.

비록 우리들의 불당이 크지 않더라도 신선과 부처님은 작게 보시지 않는다. 우리는 혜안이 없어서 선불들이 오셨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이다.

將無生老母請到佛堂以內然後行九五大禮 所以說即讀孔孟之書 必達周公之禮 當初天子祭天地之時 用三拜九叩之禮.

장차 무생노모님을 불당내에 오시도록 청한뒤에 구오대례를 행한다. 소이 말하기를 공자 맹자 글을 읽어야 하고 반드시 주공의 예법을 행해야 한다고 한다. 당초에는 천자들만이 천지에 제사 지낼때 세번 절하고 아홉번 두드리는 예법을 사용 했었다.

現在給無生老母行此最高之九五大禮外 其他的仙佛都不可行此大禮 亦算過份 而諸天仙佛亦不敢担此大禮.

현재 무생노모님께 구오대례를 행하고 있지만 그외의 선불님에게는 가히 이 큰 예법을 행하지 못한다. 이는 과분한 처사이기 때문이며 모든 선불 들은 이 큰 예법을 담당할 수 없다.

行九五大禮必後跪請申請詞 即末後一着何爲末後一着呢 當初修道時單傳獨修 所以修道人必須拋父母捨妻子居在深山古洞中參禪打座 修的三千功滿 八百果圓 然後感動上天撥機明師得這末後一着之指點.

구오대례를 마친후 꿇어 앉아서 말후일착을 청한다. 무엇을 말후일착이라 하는가? 옛날에 수도할 때는 단전독수였다. 그때 수도인들은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려야 했으며 깊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 앉아서 참선하고 삼천 가지 공을 원만히 닦고 팔백가지 과가 원만히 된 후에야 상천의 감동을 받아 명사로부터 말후일착 지점을 얻게 되었다.

但是在末後一着前 尚很多的考驗與磨煉 假是你經過考驗 八風不動 才傳你末後一着 稍爲一疎忽與動搖即有空費修功之虞 你看何等困難 這是先修後得之意

☆很=어길흔☆ ☆稍=점점초☆ ☆稍爲=조금. 약간. 다소. 좀이란뜻☆

단 말후일착 전에는 아직도 많은 고통과 시험을 갈고 단련해야 했었다. 가령 어떠한 고통과 시험이 경과하거나 여덟가지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불어와도 움직이지 않아야만이 말후일착이 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동요되어서는 안된다. 즉 닦은 공이 헛되이 돌아갈까 근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곤란은 먼저 닦고 뒤에 얻는 뜻이다.

現在吾們沒有參禪打座之修功 而能得着末後一着真功大道 這是各位由無量劫來 種下了種多的善因 所以今天得着末後一着的善果.

현재 우리는 앉아 참선해서 닦은 공은 없지만 능히 말후일착 진공대도를 얻었다. 이것은 각자가 무량겁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선한 일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말후일착의 선과를 얻게 된 것이다.

方才讀末後一着詞云(末後一着昔未言) 卽古時也未隨便讀過 (明人在此訴一番) 明人卽是奉天承運的明師叫明人 因明因在此才敢說此一番真空大道 (愚夫識得還鄉道) 愚夫卽在塵之凡夫俗子 如果認識與得着還鄉之道.

바야흐로 말후일착을 읽게 된다. (맨끝의 한판 일을 옛부터 말한 일이 없었다.) 즉 옛날에는 쉽게 읽을 수 없었다. (상제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처음으로 말한다.) 명인은 즉 하늘을 받들어 운을 이으신 명사를 명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명인은 여기에서 감히 한번 진공대도를 설한다. (범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 우부는 즉 티끌 세상의 범부 속자를 말하며 범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얻어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現在吾們居主的塵世並非是老家鄉 如果得着還理天老家鄉的真空大道 (生來死去見當前) 卽生來塵世死去入陰間之道路 在你當前卽是.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티끌세상은 오래 살 수 있는 내집 내고향이 아니다. 진공대도로서 오래 살 수 있는 내집 내고향인 이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태어나서 오고 죽어서 가는 것을 바로 내 앞에서 본다.) 즉 진세에 태어나서 오는 것은 죽어서 가는 음간의 도로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다.

今天已得生來死去之路 應當了解生從何來死向何去 修的不來不去亦卽不生不死 方能脫離六道輪廻 這是末後一着之意.

오늘은 태어나서 오고 죽어서 가는 길을 얻었다. 응당 생은 어디를 좇아서 오는 것이며 죽음은 어디를 향하는 가는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다. 수도하면 오지도 하니하고 가지도 아니하며 또한 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

는다. 바야흐로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니 이것이 말후일착이란 뜻이다.

申請詞讀畢 又讀龍天表俗語說你講下龍天表來吾也不信 這是表示此人失信用之話

신청사를 마친 후에 또 표문을 읽는다. 속담에 말하기를 (네가 표문을 읽어도 나는 믿지 않는다)란 말이 있다. 이는 남에게 신용을 잃었다는 표시다.

但是龍天表作什麼用呢 吾們也不曉的 也未見過 今天見着啦 作什麼用場 就是以命交天用的.

그러면 용천표는 무엇에 쓰이는가? 우리들은 이제까지 그 쓰임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용천표를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하며 이는 생명을 하늘에 바칠 때에 쓰인다.

俗人在無可奈何之際無辦法之時 就說以命交天 那是空說不能辦今天算辦到啦.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 방법이 없을 때에 생명을 하늘에 바친다고 말하나 이것은 빈 말이며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도 좋다.

龍天表上寫的是什麼呢 寫的年月日時 某處地方 某某佛堂 引保師的名字 與吾們求洞人的名字.

그러면 용천표위에는 무엇을 쓰는가? 연월일시를 쓰고 어느 지방 어느 불당 인보사의 이름과 구도인의 이름을 쓴다.

以及各位所交的功德費捨元 可是上邊寫的是九元 因爲道這九元是印書印訓用的當世勸人以口 百世勸人以書.

구도인들이 바친 공덕비 십원은 표문 갓변에 九원은 책을 인쇄하고 훈시문을 인쇄하는데 사용한다. 현세에는 사람에게 입으로 권하지만 백세가 되면 사람에게 책으로 권한다.

譬如有人 你同他講 他不相信 他看書訓明白真理 他就求道啦.

비유하면 사람이 있어 남에게 강의를 할 때 남이 믿지 않을 경우 책과 훈시문을 보고 진리의 명백함을 알아 구도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這個人求道因看書的關係這個功德就是你今天所交的這九元就叫做功德費另 外

一元是買供菓用的 就叫作功菓費.

개인이 책을 보게 되어 구도를 하게 되었으니 이공덕에 있어서 오늘 바친 九원을 공덕비라 부르는 것이다. 그외 일원은 과자를 사는데 사용하므로 그것은 공과비라 부른다.

如果求道的人多 供菓費也多啦 但是清供也用不了同時也有道親買菓來 這錢怎辦呢將錢存在賬上 買茶菓啦 招待來往的道親呢 這叫取之於道親用之於道中 這就是今天你各位所交這捨元錢的兩種用途.

구도인이 많으면 공덕비도 많으나 신성한 과일을 사는데 다 소요하지 않는다. 동시에 도친들이 과자를 사오면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가? 창차 장부에 기재되고 차를 구입하여 손님들이 오시면 대접하니 도친들에게 받아서 도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공덕비로 바친 십원은 두가지 종류에 사용 되는 것이다.

將此龍天表讀畢後 名字都對啦 然後將他焚化將這章表焚昇到理天.

장차 용천표를 다 읽고 마친 후에 이름을 대조한 다음 불에 사른다. 불에 사른 이 표문을 올라가서 이천에 도달한다.

無生老母接到表章後 關心 六萬多年有見的兒女 今天求道啦 希望將來各位行功立德歸家認母 以證九五蓮台之位

무생노모님이 받아보시고 큰 관심을 갖으시니 육만년이란 긴 세월만에 아녀자를 보게 된 것이다. 이제 도를 구하였으니 장래 희망은 공을 행하고 덕을 세워 노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오연대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所以派三官大帝到陰曹地府 找到閻王出生死簿姓名住扯對畢 以紅筆勾銷這就是天榜掛號地府抽丁從今跳出三界外 不在五行中啦 這就是龍天表以命交天的用場.

그래서 삼관대제께서 지옥에 오셔서 염라대왕을 만나 뵈고 생사의 장부를 찾아 성명과 주소를 대조하여 붉은 붓으로 그 글자를 지워버린다. 이것이 이름을 지부에서 뽑아내어 천방에다 올린 것이다. 이제 삼계를 뛰어넘고 오행 중에도 있지 않다. 이 용천표는 생명을 하늘에 바칠 때 사용한다.

虔心跪在 卽是誠心誠意的戰戰兢兢的跪在明明上帝蓮下 今天願引願保 一個願意作引一個願意作保 作引引着你求無上甚深妙法 作保着你身家清白品行端正.

성심과 성의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명명상제 연대아래 꿇어앉아

인사보사 되기를 원한다고 고한다. 한사람은 인사가 되기를 원하고 한사람은 보사되기를 원하며 인사는 구도인을 이끌어 위없는 매우 깊고 묘한 법을 구해주며 보사는 가정이 청백하고 품행이 단정함을 보증하여 주는 것이다.

(如若引入保入左道旁門) 如果引着你保着你入了左道左者不正旁門即邪門 今天你求的 這個道不真 或者是左道旁門 (誑哄求道人之錢財) 如果騙你各位的錢或財 (願受天譴雷誅)

(만약 인보사가 좌도방문에 이끌었다면) 인사가 이끌고 보사가 보증하여 좌도방문으로 들어가게 함이니 좌자는 바르지 못함을 말하며 방문은 사고를 말한다. 오늘 바르지 못한 길로 이끌어 도를 바치거나 혹 좌도방문으로 이끌어서 억지로 구도시켜 남의 공과 재물을 소모하고 돈이나 재물을 탐하여 속였다면 원컨대 하늘이 꾸짖어 벼락쳐도 달게 받겠다는 원을 세운 것이다.

你大家看看引保師苦口婆心勸吾們求道 不但分文未得 落了一身洪誓大願你 大家不要忘了引保師的恩德

생각해보면 인사 보사가 애써가며 마음을 다하고 입을 열어 우리들에게 도받기를 권했지만 조금도 이익됨이 없고 한몸에 홍서대원만 떨어진 것이니 인보사의 은덕을 잊어서는 안된다.

不忘恩德怎辦呢給引保師送禮鳴 不要佛堂內有這個規矩那麼怎辦呢你以引保師度你的那種道理 再去度你的親戚與朋友.

어떻게 해야 그 은덕을 잊자 않을 것인가? 인보사에게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이러한 법은 불당내에서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보사가 여러 가지 도리로써 우리를 제도 했듯이 다시 우리도 친척이나 친구들을 제도하면 된다.

度一人即是救一人 救人一命勝造七級浮屠救人多啦 引保師就沾了光啦 同時吾們也就報答引保之恩啦 度人有這樣大的好處 那麼吾們趕快度人好啦.

한사람을 제도하면 한사람을 구하고 한 생명을 구하면 七層塔(칠층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인보사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사람을 제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니 빨리 빨리 많은 사람을 제도해야 된다.

各位要明白度人時有三不度 (1)身家不清白品行不端正不可度 (2)殺生害命不

務正業者不可度 (3) 下九流不可度 這是本道的佛規.

사람을 제도할때는 명백히 행야 하며 제도하지 않아야 할 세가지가 있다. 집안이 청백하지 못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과 생명을 살행고 바르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 또 하구류는 제도하지 못한다. 이것이 본도의 불규이다.

經關聖帝君批下來的 度上一個好人有三分功如度上個壞人當然也有三分過 大家度人之時千萬要注意爲是.

관성제군께서 “좋은 사람을 제도하면 삼분의 공이있으나 나쁜 사람을 제도 하면 삼분의 공이 있으나 나쁜 사람을 제도하면 당연히 삼분의 허물이 있다.” 고 말씀 하셨다. 사람을 제도할 때는 천만번 주의해야 한다.

今天吾們求道啦 從前種種事譬如昨日死 從今後種種事譬如今日生 今天吾們是義理再生之身 重作新民行功倍德將來功證天上名留人間 上可以超玄拔祖下可以蔭子孫代光耀門楣這就是一本萬利.

오늘날에 와서 우리들은 도를 구했으니 종전의 모든 일들은 어제로해서 죽은것에 비유하고 이후 모든 일들도 오늘 다시 태어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은 옳은 이치의 한몸으로 태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공을 행하고 덕을 복돈으면 장차 그 공이 천사에 인증되고 이름이 인간에 남아 위로 칠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는 구현의 자손과 만대에 자손을 덮어주어 그 가문에 빛이 나게 된다. 이것이 한 근본을 닦으면 만배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由邪得來的呢 都是引保師的苦心 而得這麼多的好處 這是吾們各位來佛堂求道以前的經過與儀式至於得道 得的是什麼呢 因爲方才時間倉促一時也不能記得現在吾們各位要注意聽着.

이러한 덕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인보사의 고심으로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불당에서 구도의식을 거쳐 도를 구해 얻었다.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여 일시에 모두 다 기록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서 잘 들어야한다.

吾們大家犧牲了三樣 (1)金錢 (2)時間 (3)叩的頭 雖然犧牲三樣 又得返三樣 (1)玄關 (2)口訣 (3)合同 但是這三樣 可說是無價之寶並不是有錢可以買到的憑祖德根基錄份 才能到這超生了死歸本還原之寶貝. ☆竝.并.並같은글자=나란히할병☆
우리들은 금전. 시간. 절하는것등 세가지를 희생했다. 비록 세가지를 희생했지만 반면에 현관. 구결. 합동등 세가지 보배를 얻었다. 이 삼보는 가히

값으로 셀 수 없는 보배로써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조상의 덕과 근기와 연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생사를 초월하여 근본으로 돌아가는 보배이다.

第一寶 (玄關) 這玄關在人身上是一個總機關總樞紐即是靈性所居之地所以 方才寶地同時又是五官之一. ☆樞紐=중요관점. 요점. 樞=지도리추. 紐=매듭유, 끈유

☆

제일보배는 현관이다. 이 현관은 사람몸에 있어서 총기관이며 총추축으로써 영성의 소재지이고 방촌보전이라 하며 동시에 오관의 하나이다.

吾們聽耆相노說過 (1)眼爲鑑察官判別青紅皂白之色 (2)耳爲採聽官辨別官尚角徵羽之五音 (3)鼻爲審判官辨別苦辣酸恬之五味 (4)口爲出納官宣揚仁義禮智信之五常 (5)眉爲促壽官濃厚潤大以增高壽. ☆辣=매울랄☆ ☆恬=달침 ☆潤.闊=넓을활

우리가 관상학의 말을 들어보면 첫째 눈은 청.홍.흑.백색을 구별하므로 감찰관이라 한다. 기는 중상각치우 오음을 구별하므로 재청관이라 한다. 코는 냄새를 구별하므로 심판관이라 하며 입은 쓰고. 맵고. 시고. 달고. 짠 다섯가지 맛을 구별하므로 심판관이라 하며 입은 쓰고. 맵고. 시고. 달고. 짠 다섯가지 맛을 구별하므로 출납관이라 한다. 또한 인의예지신 오상을 들 수 있다. 눈썹은 보수관으로 질고. 두텁고 큰 것은 장수 한다고 한다.

這是相書上說的但是我們細詳 五官中只有眉無竅眼耳口鼻都是竅隆亦證明眉不第一官 只有配上玄關才五關但是不求道 誰也不知何爲玄關. ☆隆=하늘룽☆

위의 내용들은 상서에 적혀있다. 단 자세히 말하면 오관중에 눈썹은 있지만 구멍은 없다. 그러나 눈. 귀. 코. 입은 구멍에 계산되지 않음이 증명되었으며 현관이 오관에 들어간다. 도를 구하지 않으면 누구라서 어찌 어 현관을 알 수 있겠는가?

常言說 五官不全一竅不通 就是玄關一竅不通 比竅一通百竅貫穿 這就是歸家之正陽法門.

상언에 말하기를 “이 현관 한 구멍이 막혀 있으므로 통하지 못하여 오관은 완전하지 못하다” 고 했다. 이 한구멍이 통하면 백구멍이 통하게 되며 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른 법문이다.

譬如這五官也可配合五色五味五常五行等 假使眼如非禮而視過甚時臨死時眼靜

大不能閉 這是證明眼造罪靈性由眼而出 投生飛鳥等類 因眼屬於南方火在五族中爲羽.

비유컨데 오관은 오색. 오미. 오상. 오행 등을 배합하는 것과 같다. 가령 눈으로 예가 아닌 것을 지나치게 보면 죽을 때 눈을 크게 뜨고 감지 못한 다. 이것은 눈으로 죄를 지었다는 증명이다. 영성이 눈으로 나가면 나는 새 종류로 되고 눈은 남방화에 속하며 오족중에 날개가 있다.

如耳聽非禮過心 臨死時靈性由耳中而出 耳屬東方木在五族中爲毛 卽驢馬牛騾馬猪羊等類

☆驢=나귀러 騾=노새나 猪=돼지저☆

귀로 예가 아닌 것을 지나치게 들으면 죽을 때 영성이 귀로 나간다. 귀는 동방목에 속하며 오족 중에 털이 있어서 당나귀. 말. 소. 노새. 돼지. 양. 등의 종류다.

鼻如貪不正之邪味 造罪甚時臨死時鼻子歪邪 卽是靈性由鼻中而出 鼻屬西方金在五族爲甲 卽蚊蚋蟲烏龜等類.

☆蚊=모기문 ☆虫+且=구데기전☆

코로 바르지 못한 맛을 탐하여 지나치게 죄를 지으면 죽을 때 코가 바르지 못하여 영성이 코로 나간다. 코는 서방금에 속하며 오족중에 갑족으로 모기 파리 굼기 벌레 까마귀 거북 등의 종류이다.

口如非禮而言造罪過甚臨死時口張大不合 卽是靈性由口而出 口屬北方水在五族爲鱗 卽魚鼈蝦蟹等類

입으로 예가 아닌 것을 지나치게 말하여 죄를 지으면 죽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다물지 못하여 영성이 입으로 나간다. 입은 북방수에 속하며 오족 중에 린족으로 물고기. 자라. 두꺼비. 게 등의 종류이다.

這四樣叫作四非四非卽罪字 所以孔子叫人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 這是教人免四非之罪而希賢希聖之意.

이四字 모양은 四非로 만드는데 四非는 즉 罪(죄)자이다. 공자께서 “예가 아닌 것은 보지 말며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행하지 말라” 하셨다. 이것은 네가지 죄를 면하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치신 성현의 바라는 뜻인 것이다.

假如苦無凡四非之罪時靈性由肚臍而出投生人間如善多者則殺生富貴之家惡多者則殺生貧賤之家 此皆爲因緣果報之理自己種因結果.

가령 네가지 죄가 없을때는 영성이 배꼽으로 나가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부귀한 가정에 태어나고 악한일을 많이 하면 가난하

고 천한 가정에 태어난다. 이것은 다 인과응보의 이치로써 자기가 원인을 심은 결과인 것이다.

所以說(玄關竅無價寶指開卽是蓬萊島)此竅在人身八萬四千毫毛 孔竅中 是正中一竅 又叫作生死門戶.

소위 말하기를 (손가락으로 열어 준 현관 한 구멍은 값으로 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의 보배이다)고했다. 이 구멍은 사람 몸의 팔만사천 털구멍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구멍으로 나고 죽는 문이다.

所以太上感應篇上說(禍福無門惟人自招)卽是此意今天得道以後常清常靜 念茲在茲常常守玄 臨死時靈性由玄關而出 冬不挺屍夏不臭味面目如生週身柔軟卽是證明超生了死脫難苦海之象微.

태상감응편에 (화와 복은 문이 없으나 오직 인간 스스로가 불러들인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도를 받은 이후에 항상 청정하고 생각생각을 현관에 두어 항상 현관을 지켜나가면 죽을 때 영성이 현관으로 나간다. 그러면 겨울에도 시체가 굳어지지 않고 여름에는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으며 얼굴이 살아있는 것과 같아 온몸이 부드럽다. 즉 이것이 초생료사했다는 증명이며 고해를 벗어났다는 상징이다.

古人說(生我之門死我戶幾個惺惺個悟 夜半鐵漢自思量 長生不死由人作)卽是說 得此竅後超生了死也是由人自己去作

☆鐵漢=의지가 강한 사람

☆

옛사람이 말하기를(내가 태어나는 문이 곧 내가 죽는 문인데 몇사람이나 깨달아 알고 있는가? 한 밤중에 철한이란 사람은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지어 만든다고 생각하였다)고 했다. 즉 이것은 이 한구멍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초생료사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자기 자신이 자기 갈길을 짓는다는 것이다.

孔子云(誰人出不由戶何莫由斯道也) 卽是不得此點誰也脫不了生死 在生死輪廻中輪此尸首 此尸如能得點卽成戶矣.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문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리요 마는 어찌 이 문을 마다하는가?)라고 하셨다. 곧 이한점을 얻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생사를 탈피 할 수 없으며 생사윤회 가운데에서 시체로 돌고 돌 뿐이다. 이 시체가 능히 한점을 얻으면 생사를 超脫(초탈)할 수 있는 문을 찾는 것이다.

古人說(有理走遍天下無理寸步難行) 中庸上說(道也者不可須臾難也 可離非道也)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이치가 있으면 천하를 두루 다닐 수 있으나 이치가 없으면 한걸음도 행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증용에도 (도는 가히 잠시도 떨날 수 없는 것이며 가히 떠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道卽理也 理卽性也 性在人存 性去人亡 在天爲理 賦人爲性.

도는 곧 이치이고 이치는 곧 성이다. 성이 있어야 사람으로써 존재할 수 있으며 성이 떠나면 죽은 사람이다. 하늘에 있어서는 이치이며 사람에게 부여되면 성이다.

吾們看看 古聖人造字之意 理字如失一卽變埋字 卽是若不得此一字理 將此佛性埋於六塵之中 永無出頭之日矣 失一成埋得一成理 細悟此理卽可豁然矣.

우리들은 옛 성인께서 만든 글자의 뜻을 보게 되면 이치이(理)자에서 한 획을 잃으면 묻을매(埋)자로 변한다. 곧 이치이(理)자가 한 획을 얻지 못하면 장차 불성이 육진(六塵=눈.기.코.입.몸.뜻)에 묻혀 영혼히 나타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하나를 잃으면 묻을(埋)자가 되고 하나를 얻으면 이치이 (理)자가 된다. 이 이치를 자세하고 깊게 깨달으면 불성이 막힘없이 통하게 된다.

中庸上第一句卽說(天命之謂性) 證明吾們的佛性由理天而來 但是落在後天 被物慾矇蔽名利遮蓋 而不知佛性由何而來 同時亦不知何謂道 所以生死輪迴不息 증용 제일구절에 (천명은 성이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들의佛性(불성)이 理天에서 온 것임을 증명한 것이다. 단지 後天(후천)에 떨어져 묻음에 입혀지고 명예와 이익에 가려져서佛性이 어디서 온것임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동시에 왜 道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生死輪迴(생사윤회)는 쉬지 않는 것이다.

古聖憫此衆生之苦 第二句說(率性之謂道) 循性而行謂之道 但是性爲何物呢 性在何處呢 怎樣率法呢.

옛 성인께서 생사윤회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의 고통을 불쌍히 역기시어 증용 제이구절에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고 하셨다. 성품을 좇아서 행하는 것이 道인 것이다. 理性(이성)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왜 法에 따르라는 것인가? 이것들이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這都是一個謎 不得道也無從下手 今天得着道 再細悟一下率字之意 中間是玄
兩邊兩個人 在十字架上 這不是找到率性了嗎 不言而喻矣.

☆謎=수수께끼미 找=찾을조 嗎=아편마 어조사마 喻=깨달을유 비유할유☆

이것은 모두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도를 얻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
야 할지 모른다. 오늘 도를 얻었으니 다시 한번 率(솔)자의 뜻을 자세하게
생각해보자. 중간이 玄이고 양쪽가에는 두사람이 있는데 모두 십자가 위
에 있으니 이것이 성을 찾아내고 따르는 것이라 하지 않겠는가? 즉 무언
중에 진리를 진리를깨달게 하는 글자 인 것이다.

大學上說(大學之道在明明德) 卽是大學的道理何謂大 惟天爲大 惟地爲大 聖
賢仙佛爲大 若想學天地聖賢仙佛 必須先明其明德.

대학에서 말하기를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대학의 도리가 어째서 크다고 하는가? 오직 하늘이 크고, 오직
땅이 크며 성현선불이 크다. 만약 천지의 성현선불을 배우고 싶으면 반드
시 먼저 그 명덕을 밝혀야 한다.

那麼明德是什麼呢 朱子說過 明德者人之所得乎天 虛靈不昧 具衆理而應萬事
者也 這樣說來 明德卽佛性.

그러면 명덕이란 무엇인가? 주자의 말씀에 의하면 “명덕은 사람이 하늘
로 부터 얻은 것이며 비어있고 신령스러우며 어둡지 않아 모든 상의 이
치와 만사에 응한다” 고 하셨다. 이러한 말은 명덕은 즉 불성임을 말한
것이다.

明德在何處呢 將德字之揭語 寫出卽了解悟 (人上有真人 十字大街尋 四門緊
關閉 一心找娘親) 這四句揭 雖然說的很明顯 若不得道也莫明其土地堂今旣得
道 亦卽豁然而通這都是道的寶貴性.

☆悟=혜칠부 很=송사할흔☆

밝은 덕은 어디에 있는가? 德자를 말하여 보자. 그려내어서 해석을 해보
면 “사람위에 진인이 있고 십자 큰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또 사문은 굳
게 닫혀 있고 한 마음이 어머니를 찾았으니” 이 네 글귀는 비록 그 뜻을
매우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만약 도를 얻지 못하면 그 토지당(土地
堂=현 관)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이미 도를 얻었으므로 역시
활연히 통 할 수가 있으니 이는 모두 도의 귀중한 보배인 것이다.

希望各位 要多參悟和研究 以體行於日用之間則道日新德日明矣.

여러분께 바라건대 많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행하
여 도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덕이 날로 밝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玄關間一竅中之佛性卽眞我 色體卽假我 釋迦佛降生後 第一句卽說 (天上天下 惟我獨尊) 我卽性體之眞我 眞我與天地同心 與萬物一體 假我是忽生忽滅變幻 無常之體.

현관 한 구멍 가운데의 불성은 眞我이며. 형상있는 육체는 假我이다. 석가 부처님이 강생하신후 “천상천하에 오직 나홀로 높다.” 하셨으니 “나”는 곧 마음의 본체인 진아인데. 진아는 천지와 같이 마음이며 만물과 일체가 된다. 가아는 홀연히 생겼다가 홀연히 없어지는 변화무쌍한 육체이다.

順治皇帝出家詩云

순치황제 출가시에 이르기를
“未生之前誰是我
태어나기 전에는 누가 나이며
生我之後我是誰
태어난 후에 나는 누구인가?
長大成人方知我
자라서 어른이 되어 비로소 나를 알았건만
合眼朦朧又是誰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니 이 또한 누구인가?
來時歡喜去時悲
올때는 기쁘고 갈때는 슬프나니
空在人間走一回
속세에서 헛되이 머물다 감이로다.
不如不來也不去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아니한다면
亦無歡喜亦無悲”
역시 기쁨도 슬픔도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這不來不去 卽不生不死. 人生塵世造罪者 卽假我 受罪者 卽眞我之佛性. 我字如少返一點 卽變爲我. 如得這一點 卽成眞我之佛性.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이 진세에 나서 죄를 짓는 것은 가아이고 죄를 받는 것은 진아의 불성이다. “我”자의 적은 한 점을 없애면 곧 찾을 “找=화”자로 변하는데 이 “找” 자가 한점을 얻으면 곧 진아의 불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所以古人說我的詩云

옛사람이 나 “我” 에 대해 시에서 말하기를
 “我問你是誰=나는 묻노니 너는 누구인가?
 你原來是我=너는 본래 나이다
 我本不認你=나는 원래 너를 아지 못하건만
 你偏認定我=너는 나를 잘 알고 있다.
 我離不開你=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건만
 你却離得我=너는 오히려 나를 떠나가고 있구나
 等到百年後=백년이 지난후
 有你無了我 “=너는 있고 나는 없도다
 此我即假我 你即真我 這一段即是假我真我的說話亦由證明真我之永求性.
 이 “我” 는 가짜의 나를 말하며 “你” 란 참 나를 말하였으니 이 사는
 가짜 인 나와 진짜인 나의 대화를 통해 진아의 영구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다.

假我是暫時的 但是今天找到了真性啦 真我即如佛性 即真空妙理 真空無陰陽
 但能生陰陽 它是超倫絕對的.

가짜의 나는 일시적이다. 그러나 오늘 진짜 성품을 찾았다. 진아는 불성과
 꼭 같으니 곧 진공묘리이다. 진공에는 음양이 없지만 능히 음양을 생할
 수 있는 것은 특출한 절대적인 것이다.

真空無形 假者有象 譬如色體是有象的 真空之理是無象的 雖然無象離它不可
 又叫作無相實相 我們的色身週身都有形象可指 但玄關之真空 作支配色身之無
 相實相 就這一點是真其他都假.

진공(천성)은 형상이 없으나 가짜는 형상이 있다. 비유컨대 육신은 형상이
 있지만 진공의 이치는 형상이 없다 비록 형상은 없으나 육신을 떠나서 살
 아갈 수가 없으므로 무상실상이라고 부른다. 우리들의 색신 전부가 가짜
 형상임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현관의 진공묘리는 육신을 지배하는 무상
 실상이며 이 한 점이 진이다. 그외 다른 것은 모두 가짜이다.

你看這個真字 十目一人合四字爲一 即成真 這樣不就明白了這真字的真意了
 嗎?

이 眞字(진자)를 보면 열十. 눈目. 한一. 사람人. 四글자가 합해 하나가 되
 어 眞을 이루고 있으니 이 眞字의 참 뜻이 곧 명백해지지 않는가?

嘗說生來死去 生從何來死從何去 知到來去處 方是修道人

일찌이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 “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죽음은 어

디 로 가는 것인가? 오고 가는 곳을 알아야 비로소 수도인이다” 라고 하였다.

又云=또 이르기를

修道如何修=수도란 어떻게 닦는 것인가?

只要識路頭=오직 이 길을 알아야 한다.

路頭若識得=이 길을 만약에 알게 되면은

生死一齊體=생사의 일체가 사라진다고 하였다.

今天找得了道 詳細參悟一下 也就知道玄關是生我之門 生在母腹之中七天 先生成此竅 然後再生鼻子嘗如發明一件物品之人 即稱為鼻祖 此意即表示人生時先生鼻 其實鼻是第二步呢 第一先生玄關 七天生成 其名爲七日一陽來復.

오늘 도를 얻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으니 곧 현관이 내가 낳은 문임을 알게 된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7일만에 먼저 이 구멍이 생겨나고 그 다음으로 코가 생긴다. 비유컨데 처음으로 물건을 발명한 사람을 곧鼻祖(비조)라 일컬는데 이 뜻은 사람이 잉태될 때 먼저 코가 생긴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현관이 7일만에 이루어지니 그것을 이름하여 7일만에 일양이 돌아온다고 한다.

你看看各人的面孔上 都有一個大字來細參修道人要常常的打坐 有的人不解其意 即每日坐上蒲團上叫打坐 古聖造這坐字 也有真義.

각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 모두 하나의 큰(大)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인은 항상 좌선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 방석에 앉아 있는 것을 좌선이라고 부르는데 옛 성인이 이 “坐”자를 만든 것도 깊은 진의가 있는 것이다.

坐字偈語云 一. 二. 三. 四. 五 二人守一土 解開其中意 便是西方祖 坐即是二人守土的工夫 一日如此 日日如此 念茲在茲自然佛性光明.

“坐”자의 글귀에 일. 이. 삼. 사. 오 두 사람이 하나의 토를 지킨다. 그 속 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니 곧 서방불조이다. 좌자는 곧 두사람이 “土”를 지키는 공부이니 하루가 이와 같으면 나날이 이와같은 것이고 생각이 이 러하면 아무름도 이와 같으니 자연히 불성이 밝아진다.

本身上之佛性 才是眞佛都是假的 所以古人說偈云

자기의 몸에 있는 불성이 곧 진불이다. 몸 바깥의 불은 가짜인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佛在靈山莫遠求

부처는 영산에 있으니 멀리서 구하지 말라.

靈山只在汝心頭

영산은 오직 너의 마음에 있으니.

人人都有靈山塔

사람 사람이 모두 영산탑이 있으니.

只在靈山塔下修

오직 영산탑 아래서 수도하라....했다.

你看說的多麼真切證明佛在你心頭上啦 外邊的佛不過是教人借相明理而已. 你們去廟中拜佛見到大殿上 有三尊大佛 中間的佛名如來佛 兩邊的是陪坐的. 你如仔細一悟 不就明白了嗎?

이 말에서 부처는 당신의 마음에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외부이 부처는 그 형상을 빌어서 사람에게 이치를 밝히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절을 할 때 대웅전의 부처님을 보면 세분의 부처님이 계신다. 가운데 부처님이 여래불이고 양쪽의 부처님은 이 부처님을 보좌하고 앉아 있는 것이니 당신이 곰곰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곧 명백해지지 않겠는가?

心經上第一句就說 (觀自在菩薩) 即觀看本性所在之地 有一位活菩薩 也即是說的這地方. 你如到觀音廟中拜菩薩 見到中間坐者是觀音菩薩 左邊是善財童子 右邊是龍女 你借這個象 悟到你本身上 不就了解了嗎?

심경 첫구절에 (너자신에게 있는 보살을 보라) 하였으니 觀(관)이란 본성이 있는 곳을 보라는 뜻이며 한분의 활보살이 있다는 것. 역시 이곳을 말한 것이다. 당신이 관음절에 가서 보살께 절을 할 것 같으면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관음보살이고 왼쪽에는 선재동자. 오른쪽은 용녀가 있음을 보게 된다. 당신은 이러한 상징을 빌어서 당신 스스로를 깨달아 알수 있지 않느냐?

孔子說 (三人行必有我師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這幾句話假說不以道解釋 是不甚通順的.

공자께서(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선한 것을 본받아 따르고 선하지 않는 것은 고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도리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譬如(三人行必有我師) 這個(必)字 是必定之意也就是說必定有我之師

비유하여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는데 이 (必=필)자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즉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下邊說擇其善者而從之 如果三人之中無一個是善者那麼孔子還認他爲師麼 當然不會的 如不認爲師則必有我師之句豈不是矛盾嗎? 既稱爲大聖之聖 那有矛盾之理吧. 內有眞義所在 卽率性爲師아 ☆口+阿=어조사아. 사랑할아☆

이어서 “그 선을 택하여 따르라” 했는데 만약 세 사람중에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공자에게서 그를 스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만약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구절은 모순이 아닐 수 없으니 이미 크게 성인을 이루신 분이 어찌 모순이 있겠는가? 이 안에는 참된 뜻이 담겨져 있으니 곧 率性(솔성)을 스승이라 한 것이다.

所以過去前人說過本道之四句偈 一點爲眞 三教作證. 率性爲師 依經而行. 這樣一語 卽明白必有我師之理即可.

그래서 과거에 전인께서 본도에 대해 사구계로 말씀하셨으니 “한점을 진이라 하니. 삼교가 증명하네. 솔성을 스승으로 삼고. 경에 의해 행할지니라” 이러한 말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이치가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玄關一竅 在五色中屬於黃色. 所以易經上說 “黃中通理 正位居體” 性有這裡邊的一點黃色通理天 這也證明玄關之眞實性.

현관일구는 오색중에 황색에 속한다. 그래서 역경에서 “황색중으로 통하는 이치가 바른 위치에 있는 본체다. 이 속의 한점 황색이 있어 이천으로 통한다” 고 하였으니 이도 역시 현관의 진실성을 증명한 것이다.

古人說修道卽修空 不錯因眞空之妙理 視之不見聽之不聞 無聲無臭 只有穴竅中用工夫 空卽穴工二字.

옛 사람이 말하기를 수도란 즉 닦아서 비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이는 진공의 묘한 이치이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오직 구멍 가운데의 공부에만 힘쓸뿐이니 空(공)자는 구멍혈(穴)과 힘쓸공(工)의 두글자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所以大學上亦說顧諟天之明命 就是要常常的看着這個什麼呀? 上天給吾的那個明亮的東西 要常常的看着他照顧他 這才是修道的工夫呢

그러므로 대학에서도 역시 이 하늘이 밝은 생명을 돌아보고 항상 이것을 보려고 해야한다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인가? 상천이 주신 나의 물건인 그것을 항상 보고 그것을 비추어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야흐로 수도의 공부인 것이다.

人爲萬物之靈與天地並列爲三才 就憑比一點之眞理這點眞理 能生天地萬物.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하늘 땅과 더불어 삼재라 하는 것은 곧 이 한점의 진리에 의해서이다. 이 한점 진리는 능히 천지 만물을 낳는다.

所以道德經上謂 “谷神不死 是爲玄牝 玄牝之門是爲天地根” 有這幾句話證明這點眞理 能生天地萬物.

도덕경에 강론하기를 “곡신은 죽지 않으며 이를 현빈이라 이른다. 현빈의 문은 천지의 근원이 된다.” 란 이 몇마디 말은 이 한점의 진리가 능히 천지 만물을 낳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谷○神不死 卽空谷中一點靈神 是不生不滅的 所以叫做不死 若悟到自己身上 谷卽玄關 神卽玄內之眞如佛性 不死卽不生不滅之眞空理體.

골짜기 신은 죽지 않는다. 즉 빈 골짜기 가운데 한 점의 신령스러운 신이 있으니 이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므로 不死(불사)라고 부른다. 만약 자기 신상에 있는 것을 깨닫고 보면 곡은 바로 현관이고 신은 현관내의 참된 불성 즉 불생불멸의 진공이치의 본체인 것이다.

吾們看了上邊 這幾種證明 也卽知玄關之重要性證明了道眞理實之眞憑據.

우리는 위의 몇가지 증명을 보고 현관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으며 도의 참된 진리도 실제의 진리에 의거해 증명해보았다.

但是玄關的名稱很多. 如靈台. 至善. 雙林樹. 十字大街. 方寸寶地. 無縫塔. 無縫鎖. 明德. 虛靈. 谷神. 菩提樹. 舍利子. 無陰養地. 不향谷. 金剛體. 首楞嚴. 圓明. 精妙. 靈山. 黃中. 眞如. 理體. 實相. 法身. 佛性. 小無極. 眞空. 天君. 小上帝. 眞我. 衆妙門. 不二法門. 無. 中. 道等 很多的名字. ☆ 口+尙=

진동할함☆

현관의 이름은 대단히 많은데 여영대. 지선. 쌍림수. 십자대가. 방촌보지.

무봉탑. 무봉쇄. 명덕. 허령. 곡신. 보리수. 사리자. 무음양지. 불향곡. 금강 체. 수능엄. 원명. 정묘. 영산. 황중. 진여. 리체. 실상. 법신. 불성. 소무극. 진공. 천군. 소상제. 진아. 증묘문. 불이법문. 무. 증. 도등이다.

所以古人說 “按了無邊的假名 迷惑了無量的衆生”

그러므로 옛사람이 “많은 가짜의 이름을 살펴 보건데 수많은 중생들이 미혹에서 알지 못했다.”

若不得道 吾們大家都是一個迷 今天得着啦 一切皆能貫通.

만약 도를 얻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들 모두도 이 하나를 알 수 없었으나 오늘 도를 얻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을 능히 꿰뚫어 알 수 있는 것이다.

古人說 “眞經莫向紙上尋 紙上尋經枉費心”

옛 사람이 말하기를 “참된 경은 지면에서 찾지 말라. 종이위에서 경을 찾는 것은 헛되이 마음만 허비할 뿐이다.” 하였다.

又云 “達摩西來無字經 全憑心意用工夫 若向紙上尋佛法 筆尖 乾洞庭湖”

또 말하기를 “달마가 서역에서 올 때 한자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며. 전부 마음에 의한 공부 뿐이다. 만약 종이 위에서 불법을 찾는다면 붓끝을 담 구어 동정호가 마를때까지 다 쓸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 하였다.

王祖說過 “倒騎驢兒把頭尋 背向老娘找母親 身在大海反覓水 那個識得來來眞.”

왕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당나기를 거꾸로 타고 머리를 잡으려고 찾는 것과 같으며 노모를 뒤에 두고 어머니를 찾는 것과 같다. 내 몸에 큰 바다가 있는데 도리어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 그 어느곳에서 본래 진면목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這卽說佛性本來在自己身上. 反而向外覓尋. 如不得道向哪去尋呢.

이는 곧 본성은 자기몸에 있으나 도리어 외부에서 찾으려 하느 것을 말한 것이다. 도를 얻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겠는가?

古時有一個傳大士說偈云. “夜夜抱佛眼. 朝朝還共起. 起坐越相隨. 語默同居止. 纖毫不相離. 如身影相似. 欲知佛去處. 只這語聲是”

옛날에 한 부대사가 계송에 말하기를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같이 일어난다.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서로 좃고 따르며 말할때나 침묵 할 때나 항상 같이 있구나. 잠시라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몸과 그림자 같이 서로 닮았구나. 부처가 가는 곳을 알려고 하면 곧 이말의 소리 이것 이다.”

這都說佛不離身的意思 大家若細心參悟 當然處貫通.

이것은 모두 부처가 내몸의 생각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니 여러분이 만약 면밀히 깨달는다면 당연히 어디에서든 전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玄關竅的寶貴 說之不盡言之無窮 一切經典 證明此地 此地也貫通一切經典這是第一寶 (玄關)

현관구의 보배로움과 귀함은 말로써는 다할수 없고 이야기로써 다 할수 없고 이야기로써 끝이 없다. 일체의 경전이 모두 이곳을 증명하니 이 현관이 일체의 경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첫째 보배인 “현 관” 인 것이다.

第二寶呢 卽是方才點傳師 同你們講的五個字 大家要記住如果忘了 吾現在再與各位說說那五字呢 卽(一二三四五)

제2보배는 바로 이제 막 점전사가 당신들에게 전해준 5자 진언이니 여러분은 기억하기 바란다. 만약에 잊었다면 나는 지금 다시 여러분에게 그 오자진언을 말해주겠다. 곧 일 이 삼 사 오이다.

一 卽是無形無相的理天 誰作主宰呢 卽是明明上帝無生老母.

一은 곧 형상이 없는 이천을 말한다. 누가 주재하느냐. 곧 명명상제 무생노모님이 주하신다.

二卽是氣天 又叫一氣流行天 誰作主宰呢 卽是玉皇上帝氣天仙都屬他所管.

二는 기천을 말하며 또 일기유행천이라고 부른다. 누가 주재하느냐 하면 옥황상제님이 주재하신다. 기천의 선블들도 모두 옥황상제의 소관에 속한다.

三卽是象天. 有形相着見的模的着都是象天 誰作主宰呢從前是皇帝 現在稱爲總統.

三是 즉 상천이니 형상이 있어 그것을 볼 수 있고 구범(범도)이 있으므로 상천이라 한다. 주재자는 종전에는 황제였지만 지금은 대통령(총통)이다.

這三天的天盤 誰掌着呢 卽是現在坐在中間的那位大肚佛.

이三天(삼천)의 천반을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지금 중간에 앉아 계시는 배가 부른 부처님이시다.

這五個字包羅萬象 只有默念 不能出聲 因這是應運的口號.

이 오자진언은 만상을 두루 갖추고 있다 오직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지 밖으로 소리낼 수 없으니. 이것은 운에 따른 전언이기 때문이다.

過去 青陽期的時候 得道者是道士道姑他稽首單口念無量壽佛四字口號. 燃燈古佛掌天盤. 一千五百年

과거 천양기때는 도를 얻은 자를 도사 도고라 하였다. 한손으로 마리를 도아려 예를 표하며 입으로 무량수불 4자 진언을 염하였다. 연등고불께서 천반을 잡으셨고 일천오백년운을 맡았다.

業已過去 及到紅陽時期 釋迦牟尼佛掌天盤 和尚尼姑得道雙手合什 口念南無阿彌陀佛以六字口號 三千年應運將滿.

그 운이 이미 지나가고 이어 홍양기가 도래했다. 이 시대에는 석가모니께서 천반을 잡으시고 화상. 니고가 도를 얻었다. 두손을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의 육자진언을 넘했으며 삼천년 동안 그운이 가득하였다.

現在是末法之際 紅陽將滿白陽應運 大肚佛掌天盤 得道者 都市善男信女 當胸抱拳作揖 口念此五字口號 這就叫作無字紅大家謹記.

현재는 말법시대로 홍양기운이 가득차 지나가고 백양운을 맞았다. 배가 부른 미륵부처님이 천반을 잡았고 득도자는 모두 선남신녀들이다. 가슴에 손을 포개고 작음을 하며 입으로 오자진언을 넘한다. 이는 곧 무자진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第三寶 卽是合同 怎叫合同呢 你們各位看着左手在外 右手在內.

제3보는 합동이다. 어째서 합동이라 부르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라. 왼손은 밖에 있고 오른손은 안에 있다.

有四句偈語 (左手屬善存在外 右手屬惡在裡邊 子亥相摺懷中抱 能脫九九大劫關) 這是第三寶合同

네 글귀가 있는데 “외손은 선에 속하니 밖에 있고 오른손은 악에 속하니 안에 있다. 자해가 서로 품어서 가슴에 안으면 능히 구구팔십일겁 대겁난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보배인 합동이다.

連上共三樣 大家要記清楚這三樣作麼用呢 大家注意 遇有災難 臨身之際 卽刻三樣齊用 照這樣連誦三遍 逢凶化吉遇難呈祥 大事化小 小事化無

위에서 말한 이 세가지를 여러분은 똑똑하게 기억해야한다. 이세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주의하라. 재난이 내몸에 닥쳐왔을 때 즉시 이 세가지를 사용하라. 이데로 삼편을 연이어 외우면 흉한 것을 만나면 길해지고. 어려운일이 닥치면 풀리고. 큰일은 작게 되고 작은 일은 없어진다.

你苦忘了 就有甲啦如果用着了 亦不行 譬如打電話爲撥錯一個字 即打不通 與此意一樣

여러분들은 잊지말고 잘 사용하라.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역시 안되니 비유하자면 전화를 걸때 만약 한 개 숫자라도 잘못 돌리면 통화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千萬記着 若忘了怎辦呢 忘了的時候 可來佛堂點上佛燈叩十個頭 有當事人再傳給你.

천만번 기억하라. 만약 잊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잊었을 때는 불당에 와서 부처님 앞에 점등을 하고 십고수를 하라. 당연히 일하는 사람 (관도하는사람)이 다시 당신에게 전해줄 것이다.

還要錢鳴不要啦 只有這一次過以後你來多少趟 也不向你要錢 天道是爲救人的 都有救世的偉大志願 決不是爲了金錢辦道 辦道人員都是明理的你們放心好啦.

돈을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다. 다만 이 한차례 구도한 이후는 당신이 자주와도 당신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천도는 사람을 구하고 모든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 결코 돈을 위해서 도무를 보는 것이 아니며 도무 일을 보는 사람은 모두 이 이치를 잘알고 있으니 여러분은 마음을 놓아도 좋다.

但是這三樣上不傳父母 下不傳妻子 在外邊不能隨便講因咱們本道是三曹普渡 上度氣天大仙 不度幽冥鬼魂 中度人間 因三期末劫 劫煞很大.

이 세가지 보배는 위로는 부모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처자에게 전하지 못하며 사회에 나가서는 역시 말하지 못한다. 우리의 이 도는 삼조를 보도하는 것이므로 위로는 기천 대선을 제도하고 아래로는 귀신들을 제도하며 또한 지상에 있는 인간을 제도하는데 이는 삼기 말겁에는 겁살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氣天大仙 如過去的忠臣孝子啦 列女節婦啦 正氣不散昇到氣天 封爲大仙 現在三期末劫 氣天天盤也要換 所以大仙也非常驚恐 到處找緣人度他求道.

기천재선이란 과거의 충신 효자와 열녀. 절부들이며 바른 기운이 흩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기천으로 올라가 대선으로 봉해졌다. 현재 삼기 말굽에는 기천의 천반도 변하고 있으므로 대선들 역시 대단히 노라고 두려워 하고 이다. 그래서 곳곳의 인연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도 도를 받으려고 한다.

但是大仙求道 不這們簡單必須倒有緣之人 給他出一筆功德費再經 南極仙翁批准許可 才能求道 所以相當困難.

그러나 대선들의 구도는 이는 간단하지가 않으니 반드시 인연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그에게 공덕금을 내게 하고 다시 남극선옹의 결재를 받아서 비로소 도를 얻을 수 있으니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他也到處拉幫助道 護庇修道之人但是有的敬仙 見到得道之人因他能看得出 就接近偷聽你們說話 假如你一講這三樣 他也以爲這樣就可以歸家返理啦 那知三樣不全(因未得點) 所以不能返理.

☆偷=탐낼투, 훔칠투☆

도를 받은 선불은 도처의 도무를 도와주고 수도하는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도를 얻지 못한 선불은 도를 얻은 사람을 보면 그를 알아 보기 때문에 곧 접근하여 당신이 말하는 것을 모래 엿듣는다. 그러다 만약 당신이 3가지르 누설하면 그것을 들은 선불들은 이것으로 이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삼보를 알았다고 해서 일지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천으로 돌아갈 수 없다.

經三關九口盤查對號 完全不對 這時要查 其偷道之原因他也將某人與某人說話之事言出 這時你自己貪担責任

경에 의하면 삼관구구반에서 이름을 대조하고 조사하는데 이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이때는 그 도를 훔친 원인을 조사한다고 한다. 그 선불이 어떤 사람이 누구와 이야기할 때 들었다고 실토하면 그때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因你求道時有八條戒律中有洩露天機之話 卽受天譴雷誅之願. 希望大衆要記住. 莫作兒戲.

이것은 여러분이 구도할 때 팔조계율중에 설루천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계율을 어기면 하늘이 꾸짖어 우뢰로 별주어도 달게 받겠다는 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바라건데 여러분은 잘 기억하라.

忘記了來佛堂 要相不忘記必順於臨睡前靜坐 三四個字默念日天長 就不會忘啦 千萬不要記錯如記錯時有災難不靈啦 並不是三樣不靈是你自己不靈 千萬注意

잊어버렸으면 불당에 와서 다시 들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반드시 잠자기 전에 고요히 정좌하여 이 몇자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만약 틀리게 기억하고 있을 때는 재난이 있어도 영험이 없다. 결코 삼보가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영험이 없게 한 것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你各種看看 青.紅.白. 三期的手式 青陽單掌 紅陽合什 白陽左抱右 單掌如蓮葉合什如蓮花 左右如藕

당신은 청양기. 홍양기. 백양기 삼기의 예법 중 손모양을 청양기는 한손으로 짚을 하고 홍양기는 한손으로 짚을하고 홍양기는 열 손가락을 합하여 합장하고 백양기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싼다. 한손으로 짚하는 것은 연잎을 비유한 것이고 합장을 한 것은 연꽃을 비유한 것이며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싼 것은 연뿌리를 비유한 것이다.

所以古人說 青蓮白藕紅荷花 三教原來是一家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연잎. 연뿌리. 연꽃의 삼교는 원래 한집안이 었다.” 하였다.

這次三期得道的善男信女 是三教齊修 (1)行儒家之禮義 (2)守佛家之持戒 (3)用道家之工夫這叫三教齊修 小則可以延年益壽 大則可以明道成真.

이번 삼기에 도를 얻은 선남선녀는 이 삼교를 모두 닦아야 하는데 (1)유가의 예를 행하고 (2)불가의 계율을 지키고 (3)도가의 공부를 해야한다. 이 삼교를 모두 닦으면 작게는 수명을 연장하고 크게는 수명을 연장하고 크게는 도를 밝혀 진을 이룰 수 있다.

古人修道 拋父母捨妻子住在深山古洞 受了無窮之困苦與艱難 究竟能不能着道 都是問題 古時可說是踏破鐵鞋無覓處

옛사람의 수도는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깊은 산중 절에 들어가서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구경에 가서는 도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모두 이것이 문제였다. 옛시에도 “쇠신이 닭도록 찾아다녀도 그곳을 찾을 수가 없다.” 고 한탄하지 않았던가.?

現在呢 得來全不費工夫 這何等的容易 何等的榮幸.

현재는 어떠하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모두 얻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쉬우며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행한 일인가.

現在吾們住高樓大廈 也修得 士農工商 各不悞其職業妻爲朋子爲伴何等快樂
比之於古時 真是有天淵之別.

지금 우리는 신식건물에 살면서 사농공상 신분귀천에 관계없이 도를 얻어
수도하고 처를 친구로 삼고 자식을 동반하여 얼마나 즐겁게 수도하는가?
옛날과 비교하면 참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古人說過 [千百萬劫得人身 只因前世種來因 此身不向今生渡 更待何時渡此
身]

옛 사람이 말하기를 “천백만겁이 지나야 비로소 사람몸을 얻을 수 있으
니 단지 전세에 심어놓은 원인으로 얻은 이몸은 금생에 제도하지 않으면
다 시 어느 때를 기다려 이 몸을 제도 할 것인가?” 하였다.

這次三期末劫 又叫佳期良辰 若倘道不修 錯過此期再等十二萬九十六百年下個
元會的三期啦那就苦了.

이번 삼기말겁을 아주 좋은 시기라고 부른다. 만약에 도를 얻고도 닦지
않고 이시기를 놓쳐 버리면 다시 12만 9천 6백년이 지난 다음 원회의 삼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얼마나 고통스런 일인가?

希望各位作個銅眼鐵睛漢 立定志向 一錘打破羅鋼 翻身跳出之道輪 作個大丈夫
作個巾帽英雄 信才是鶴立雞群之奇人.

☆雞=鷄=동일한글자☆

바라건데 여러분은 한사람 한사람이 눈동자를 확실히 굳세게 정하여 실천
해 나가야 한다. 목표를 굳게 세워 하나(진리)의 쇠망치로 빈틈없이 짝 차
있는 그물(장애물)을 부수고 몸의 방향을 바꾸어 육도윤회에서 뛰어나오
면 사람마다 대장부가 되고 여장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닭들 가운데 학
이 서 있듯이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 될 것이다.

希望各位多行功 多度人 現在天時緊急 未濟家的趙快齊家 齊了家的趙快度好
親至友.

바라건데 여러분은 공을 많이 쌓고 많은 사람을 제도해야 한다. 지금은
천시가 긴급하므로 가족을 제도하지 못했으면 빨리빨리 제도하고 좋은 친
지나 가족을 다 제도하였으면 좋은 친지나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어서 바
빠 제도해야 한다.

積金莫如積德 功德至上積下金銀財寶 小人動你的腦筋積下功德呢 白天不泊人
來借夜晚不泊人來偷 何等的保險.

금전을 모으는 것이 덕을 쌓는 것만 같지 못하고 공덕을 짓는 것은 대단

히 좋은 일이다. 금은 보배를 쌓아두면 비천한 사람들이 찾아와 그대의 머리를 번거롭게 하나 공덕을 쌓아두면 밝은 낮에 사람들이 빌리려 와도 두렵지 않고 밤늦게 도적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으니 얼마나 안전한 일인가!

各位莫作近視眼 只看眼前的小名小利 這都是過雲煙 必須要放大眼光 作千里眼 與知慧眼 作未來的人天眼目.

여러분은 가까운 곳만 보는 눈을 가져서는 안된다. 다만 눈앞에 보이는 작은 명예와 작은 이익은 모두가 지나가는 연기와 구름과 같은 것이다. 반드시 눈빛이 방대해야 하며 천리안과 지혜안을 만들어 미래의 실패를 볼수 있는 천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聖賢事業 方不負此 生得道一場好呢後學講到此地 時間也不早啦 下班以後再談.

성현의 사업은 지금 당장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한자리에서 도를 얻어 구원받는 것이므로 대단히 좋은 일이다. 후학의 설명을 여기에서 마치려 한다. 시간이 늦었으니 반기를 끝내고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목본수원 =끝=

이 책의 저작권은 (재) 국제도덕협회(일관도)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